

## 울주 천전리서석의 成年銘 연대 비정을 위한 試論

여 성 구\*

- I. 머리말
- II. 成年의 비정
- III. 成業의 의미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술년명 영랑의 활동 시기를 밝힌 글이다. 그 논증 과정으로서 술년명의 형식과 내용을 주목하였다. 첫째, 술년명처럼 태두리가 있고, 天干이 없는 것으로 日王七年명과 비교했다. 日王七年명은 中代에 새긴 명문이다.

둘째, 천간 또는 간지 일부를 생략한 명문과 비교했는데, 서석의 元十二年甲子명과 辰八月명 또한 중대에 새긴 것이다.

셋째, 成業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예기』의 剛日과 柔日, 小成과 大成的 구분을 참고했다. 成年(剛年)의 성업이란 柔年에 시작한 경전 학습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성업이란 大學의 小成·大成과 관련있으며, 국학과의 연관성도 고려할 수 있다.

---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yeo8242@kookmin.ac.kr

넷째, 성업이라는 용례를 보면, 유교·불교·도교에서 찾아지는데, 3교에 대한 이해가 풍성했던 시기는 中代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술년 영랑은 중대의 화랑(또는 국학생)이며, 술년명은 경전 학습을 마친 것을 기념해 새겼고, 이후 조정에 입사하려는 의지를 담았거나, 등용된 사실을 補刻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_\_\_\_\_

술년명, 영랑, 화랑, 천전리서석, 준영랑

## I. 머리말

成年銘은 영랑의 실재를 보여주는 유일한 금석문이다. 영랑은 신라4선 중 한 사람으로서 述郎·安詳·南石보다 더 알려진 인물이다. 그 이유는 그나마 영랑의 관련 자료가 전하기 때문이다. 문헌으로는 『삼국유사』 백률사조에 俊永郎과 영랑의 열전으로 보이는 「別傳」영랑이 확인된다. 이 밖에 『삼국사기』 경덕왕대에 大永郎이라는 인물로 찾아지며, 조선후기 『청학집』·『해동이적』에도 永郎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박창화 『화랑세기』의 잔편에서 永郎이 확인된다. 이렇듯 영랑에는 다수의 영랑이 확인되는데, 모두 동일인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으며, 각각의 영랑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술년명을 주목하게 되었다.

천전리서석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sup>1)</sup> 영랑 연구는 그렇지 못한데, 그의 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成年)영랑이 효소왕 때의 준영랑이며, □成年으로 甲戌年(674년) 또는 丙戌年(686년)으로 비정하기도 한다.<sup>2)</sup> 또는 통일 직후의 인물이며, (成年)영랑=(四仙)영랑,<sup>3)</sup> ‘(成年)영랑=준영랑=(四仙)영랑’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4)</sup> 영랑은 진흥왕대, 효소왕대, 성덕왕대의 화랑이라는 설이 있고, 또 마한 이전 상고대의 신선이라는 설이 있다.<sup>5)</sup> 이처럼 (술년)영랑의 활동 시기와 그의 실체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1) 천전리서석에 대한 연구사는 전호태의 논문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전호태, 「울주 천전리 서석 암각화 및 명문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암각화연구』 6, 2005 ; 「천전리 각석 명문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1, 2018 ; 「울산 천전리 각석의 가치와 의미」, 『한국문화연구』 39, 2020.

2) 전호태, 위의 논문(2018), 2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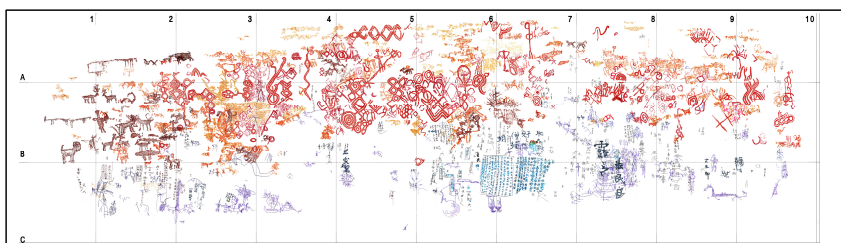
3) 李宇泰, 「蔚州 川前里書石 原銘의 再檢討」, 『國史館論叢』 78, 1997, 41쪽. 한편 안상이 4선과 가까이 지냈던 승려남도였고, 『(화랑)세기』에 기록되었음을 보면, 4선은 효소왕대인 7세기 말경에 활동했다(金相鉉, 「高麗時代의 花郎 認識」, 『신라문화제학술 발표논문집』 10, 1989, 235쪽).

4) 문경현 편, 『花郎 遺蹟地의 調査 研究』, 경상북도·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43~44쪽 및 216~217쪽 참조.

5) 여성구, 「영랑의 활동 시기에 대한 자료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

본고에서는 다양한 영랑 중 유일한 금석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천전리 서석의 술년명 영랑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戊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명문 내용이 너무 간략하므로 추론을 논증하는 방법을 취했다. 먼저 명문의 형식을 주목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명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川前里 書石은 1970년 동국대 불교유적조사단에 의해 발견되면서, 학계에 알려졌고, 고려·조선시대의 문헌에도 전혀 언급된 바 없다. 실물은 훼손과 마멸로 인해 명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복제모형을 활용하였다. 울산암각화박물관에 복제모형이 있으며, 본 글의 천전리서석 명문은 국민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모형과 사진을 참조하였다. 모형은 실물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제작 시기는 2000년대 초로 정확히 시기는 알 수 없다. 사진은 모형을 轉寫實測해 찍은 것으로 편의상, 가로는 상(A)중(B)하(C)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세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에 10까지 구획하였다.<sup>6)</sup> A와 B는 주로 동물이나 圓 등 기하학 문양이, C에는 명문과 세션화가 새겨져 있다. 또한 색깔을 넣어 각 내용을 구분하기 쉽게 작성하였는데, 서석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sup>7)</sup>



〈그림 1〉 국민대학교 박물관 소장 천전리서석 복제모형

- 6) 『화랑문화의 재조명』(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10)에도 서석 사진을 게재하였다. 상하 2단으로 나누고,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15개로 나누어 총 30구간으로 획정하였는데, ‘戊年’銘은 28구간에 있다. 전호태, 앞의 논문(2020)에도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구획 표시는 없다.
- 7) 국민대학교 소장 자료에 대해 “기존의 조사 결과와 해석을 의식하면서 이루어져 무늬를 쪼거나 그림 및 명문을 새기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추적하는 데에 일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평가한다[전호태, 앞의 논문(2005), 7쪽].

## II. 戌年の 비정



〈그림 2〉 술년명문

戌年銘은 천전리서석 왼쪽 아래편(C2 상단 중앙)에 위치한다. 장방형의 테두리 안에 가로로 새긴 2행 10자(혹은 11자)의 짧은 내용이고, 간지 표기가 완전하지 않다.

800여 자의 서석 명문들은 법흥왕대 6세기초부터 9세기까지 4세기에 걸쳐 작성된 것인 만큼 정확한 戌年の 연대 비정은 어렵지만, 그 시기를 좁힐 수 있다면, (술년)영랑의 실체에 조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戌年’을 간지로 관독한다면, 60갑자 중 甲戌·丙戌·戊戌·庚戌·壬戌 중 하나일 것이다. 天干을 빠뜨린 이유는 실수에 의한 누락과 의도적인 생략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1. 실수의 누락

기왕의 연구는 ‘戌’을 地支로 보았으나, ‘戌年’이라는 일반 표현도 보이므로, 고려할 수 있을 듯하다. 서석에도 ‘戌’과 ‘戌’의 용례가 보이는데, 丙戌載명(C2)은 ‘戌’이고, 이 명문 오른쪽에 있는 ‘丙戌年去’명(C3)은 ‘戌’자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서석의 명문들은 단순히 방문자의 이름만 새긴 것도 있으나, 방문 일자를 비교적 상세하게 새겼는데, 이를 참고한다면, ‘戌年(수자리 해)’이라는 풀이는 어색하다. 또한 ‘戌’을 ‘戌’라고 쓴 기록들이 서석뿐 아니라 여러 문헌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戌年’이라고 관독해도 ‘戌年’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天干의 누락이 실수였다면, 추론의 범위는 매우 제한된다. 다만 누락 사실을 알고, 이후 追記(補刻)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명문 관독에서 “戌年六月二日永郎成業”은 모두 일치하나, 그 뒤에 “田春方”까지 이어 보기도 한다(표 1 참조). ‘春方’은 ‘太方’으로 보이기도 하며, ‘田’자

는 ‘共’으로 비정하기도 하나, ‘用’자로 보인다(그림 1 참조). ‘用’자는 앞의 글자들과 비교해 새긴 깊이와 글자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 원래 ‘田’자를 후대에 누군가가 낙서하듯이 ‘用’자로 만든 것인지, 또는 원래 ‘田’자가 아닌 천간의 ‘甲’자인데, 후대 조작되었을 개연성도 있다.

이같이 추가로 보이는 명문들이 서석에 여럿 있다. 을묘년명의 첫 번째 행인 “乙卯年八月四日聖法興大王節”(B8)에서 ‘日’자를 ‘四’와 ‘聖’자의 오른쪽에 중간에 써넣었고, 辛亥年명(표1-㉔) 역시 ‘月’자는 ‘陪’와 ‘朗’자 왼쪽 중간에 새겨져 있다. 을묘년명은 왼쪽에 연이어 명문을 썼기 때문에 추가할 공간이 없어서 오른쪽 중간에 넣은 것이며, 신해년명은 왼쪽에 공간이 있으므로 그곳에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기존 명문의 빈 곳을 이용해 써넣거나, 아예 무시하고 그 위에 새긴 명문도 보인다.

戊年銘은 테를 돌렸기 때문에 첫 부분에 글자를 삽입한 공간이 없었고, 2행 끝부분에 공간이 있으므로 이 공간을 이용해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처음과 끝의 글자를 합쳐 온전한 간지를 새긴 것인데, 비슷한 사례로서 서봉총 출토 은함은 제작 시기를 은함 밑바닥(辛)과 뚜껑 안(卯)에 한 자씩 새겼다.<sup>8)</sup> 비슷한 天干을 찾는다면, ‘甲’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면 □戊年은 甲戊年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이 명문의 刻者가 영랑이 아니고, 그를 수행한 사람이 새긴 것일 수 있지만, 成業의 주체는 영랑의 문도가 아닌 영랑 본인이 분명하다. 干支의 有無 여부는 刻者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며, 간지를 새김으로써 작성 의도에 대한 확신을 담보한다. 따라서 간지를 넣는 경우는 刻者 본인이라고 생각된다.

## 2. 의도된 생략

### 1) 永과 戊의 의미

8) 장창은, 『한국고대사 탐색의 세 가지 시선』, 역사인, 2019, 396쪽.

명문은 1행의 戌과 2행의 永은 첫 글자로서 같은 위치에 새겨져 있다. 永郎을 준영랑의 약자로서 보기도 하듯이 이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永’의 의미에서 천간을 비정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진평왕대의 任末里=任永里, 효소왕대의 文永=文穎, 慶永=慶玄 등의 인명과 지명 下枝縣>永安縣, 吉同郡>永同郡, 大谷郡>永豐郡(모두 경덕왕대에 개명)의 사례를 보면, 永은 끝[末·終], 이삭[穎], 길다[玄], 길다[吉·長]라는 의미와의 연관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표기가 移記의 오류인지, 단순한 改名인지, 同音·同意의 다른 표기인지 구분해야 하지만, 위낙 용례가 없으니 간단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별고를 준비하고 있으나, 일단 末=永[끝], 吉>永[길다]의 의미를 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벽과 종말의 순환인 元會運世에서 戌會는 천지의 종말을 의미한다.<sup>9)</sup> 그러한 의미에서 마지막을 뜻하는 천간은 ‘壬’이고, □戌年是 壬戌年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戌의 의미를 찾아 戌年=狗年=九年이라는 추론이다. 戌年是 개해이므로 狗年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龍年羊月庚申夜’, 龍年蛇月라는 표현을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 龍年羊月은 (戊)辰年(908) 未月(6월),<sup>11)</sup> 龍年蛇月은 (壬)辰年(1592) 4월을 말한다.<sup>12)</sup> 서석에도 천간이 없는 “辰八月”(C8)이라는 명문이 있다.

狗의 의미를 찾아보면, 天狗星과 艮卦를 주목할 수 있다. 天狗星은 재해의 징조라고 생각한 유성인데, 天은 乾으로서 『周易』의 乾卦를 重天乾이라고 하였다. 건괘는 천간 甲과 壬을 상징한다. 건괘(重天乾)와 狗年을

9) 송 邵雍(1011~1077), 『皇極經世書』 참조. 이 책을 영랑이 보지 못했으나, 끝,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戌’은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子會·丑會에 천지가 열리고, 寅會에 문명사회를 이루며, 戌會에 태양과 달이 없어지고 종말이 된다고 하였다.

10) 옛 堅昆國(키르기즈)에서 狗年을 사용하였다. 宋 樂史 撰, 『太平實宇記』 권199, 四夷28, 北狄11, 黠戛斯, 土俗物產, “…(黠戛斯)人謂歲首為茂師, 謂月為哀, 每三哀為一, 時以分春夏秋冬以十二屬, 紀年假如歲在子則謂之鼠, 年在戌則謂之狗年, 與回鶻同也. …”

11) 최치원, 『孤雲集』 권1, 記,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12) 李德懋, 『청장관전서』 권2, 嬰處詩稿二, 奉贈書記遜菴元丈<重舉>隨副使之日本<并序>.

주목한다면, 天狗=甲戌 또는 壬戌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한편 狗는 『주역』의 艮卦를 상징하고, 간괘는 ‘丙’에 해당하므로 ‘丙戌年’이 생략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戌(狗)을 乾卦 또는 艮卦로 보느냐에 따라 천간은 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狗年=九年이라는 추론인데, 同音이라는 이유 외에도, 뒤에서 언급했듯이, 戌은 9와 무관하지 않다(표3 참조). 地支 중 9월을 말하고, 九年은 『禮記』에 보이는 대학의 大成에 해당하며, 신라 국학에서의 졸업年限이다. 술년에 해당하는 9년을 찾아보면, (唐高祖)武德 9년 병술(626, 진평왕 48)과 성덕왕 9년 경술(710, 당예종 景雲1) 두 개가 확인된다. 중고기에는 신라 자체 연호가 있었으므로 굳이 당의 연호 武德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성덕왕 9년을 주목할 수 있는데, 특히 이때는 천구성과도 연관된 해로서 정월에 三郎寺 북쪽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를 보면, 口술년은 성덕왕 9년(경술년)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한편 ‘龍年’의 사례를 보면, 천간을 생략해도 당시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기에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다. 최치원이 龍年이라고만 써도 당시에는 天干(戊)까지도 알았을 것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을 당대, 후대인들은 ‘龍年’이라고 했듯이 ‘戊年’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던 해였을 것이다. 19C의 사례이지만, 익히 잘 알고 있는 연대일 때 천간을 생략하기도 했다.<sup>14)</sup> 그런데 중대한 사건의 기준이 모호하며, 그것의 논증 과정이 너무 방대하다. 따라서 추론에 앞서 두 가지 전제를 하고자 한다. 첫째, 명문 자체에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과 둘째, 서석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천간을 생략한 명문과 비교하며, 그 이유를 밝히는 과정도 필요하리라 본다.

13) 『삼국사기』에 天狗年 관련 기사(권7~9 참조)는 681년(신사, 문무왕21) 6월, 710년(경술, 성덕왕9) 1월, 718년(무오, 성덕왕 17), 748년(무자, 경덕왕7) 등 4개가 전하며, 경술년이 있다.

14) 李晩燾(1842~1910), 『響山集』 권1, 詩, 挽沈丈<義億>, “家益窮空聽子年, 豐歲不能繼饘粥.” 여기서 子年은 병자년(1876)을 말하는데, 이때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들어 ‘병자년 흉년’이라고 했다.



## 2) 테가 있는 명문과 天干 생략 명문

테가 있는 제명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 돋보이거나 자랑,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공력과 정성이 더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테(□□□)가 있는 서석의 제명은 11개 있는데, 2단(田)은 이 成年명이 유일하다. 3단의 제명은 ㉔開成三年銘(위의 테두리는 없음. 표 1)과 ‘四圭銘’(C6, 2字, 가운데에는 글자가 없음)가 있다. 나머지는 모두 1단으로 되어 있다. 이들 중 간지가 확인되는 명문은 <표 1>과 같다.<sup>15)</sup>

㉔日王七年명은 테가 있고, 간지가 없는데, 술년명의 형태와 같은 조합을 보인다. ‘日’자 오른쪽에 공간이 있어 글자가 있었을 듯하나[日+□], 확인되지 않는다. 日부수를 갖는 신라왕으로 진흥왕대 이후에서 찾아보면, 昭[昭], 月[明]자가 붙는 이름으로 政明(신문왕)·清明(애장왕)·明(민애왕, 재위 838~839)이 있고, 왕호로서 孝昭王·昭聖王(재위 799~800)·景明王이 있다. 장흥 보림사 비로자나불상과 북탑지를 보면, 현안왕(金誼靖)을 情王(생전)·憲王(사후), 경문왕(金膺廉)을 凝王이라고 했음을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재위 기간이 7년 이상인 왕은 민애왕·소성왕을 제외하면 된다. 이를 근거해 연대를 살펴보면, ‘明王’에서 신문왕 7년(丁亥), 애장왕 7년(丙戌), 경명왕 7년(癸未)이 있고, ‘昭王’으로 효소왕 7년(戊戌)을 확인할 수 있다. 혹은 신문왕 7년(687)으로 보기도 한다.<sup>16)</sup> 이렇게 관독하고 보면, 테를 두른 명문의 간지는 ㉔戊午, ㉔丁亥·戊戌·丙戌·癸未, ㉔辛亥, ㉔己未 등인데, 成年이 들어가는 왕은 효소왕 7년(戊戌), 애장왕 7년(丙戌)이다.

15) 황수영, 『韓國金石遺文』(1976) : 임창순, 『韓國金石集成(先史)』(1984) : 허흥식, 『韓國金石全文』 古代篇(1984) : 이문기,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1992) 이하 編著만 인용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www.history.go.kr/>) 참조. 이 밖에 강종훈, 「울주 천전리 각석 명문의 새로운 관독과 해석」(『한국암각화연구』 18, 2014) 및 전호태, 앞의 논문(2020) 참조.

16) 강종훈, 위의 논문, 34쪽 및 전호태, 앞의 논문(2020), 13쪽. 신문왕대로 비정한 것은 효소왕, 애장왕 등 왕호의 缺割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7) 관독은 ① “癸亥年二月二日”業乙丑四月 “日”赴世, “ ② ”癸亥年二月二日”業乙丑

<표 1> 테두리 명문과 干支 생략 명문(☒ 판독불가)

판 독 자	테 명문					干支 생략 명문		
	㉔戊年명 (C2)	㉕開成三年명 (C2)	㉖日王七 年명(C6)	㉗辛亥年명 (B6)	㉘己未 명(追銘 C6~7)	㉙癸亥명 (B5)	㉚辰八 月명 (C8)	㉛元十二年 甲子명(C9)
황 수 영	戊年六月二 日」永郎成業 田」春方」	開成三年戊午」 三月一日文巖 具」化看夫之」	年僧徒	辛亥年九月 日」主陪朗 者灾文二人	略함	癸二年二月 二日」 四年四月四 日	결	開元十二年 甲子四月十 一日□□毛勺 聖林郎
임 창 순	戊年六月二 日」永郎成業 」	開成三年戊午」 三月一日文巖 具」化看夫之」	☒已年僧 徒	辛亥年九月 日」主陪明守 成二人	略함	癸亥年二月 二日」 亥年四月四 日	결	開元十二年 甲子四月十 一日□□毛斤」 聖林郎
허 홍 식	戊年六月二 日」永郎成業 田」春方」	開成三年戊午」 三月一日文巖 具」化看夫之」	年僧徒	辛亥年九月 日」主陪郎 者灾文二人	略함	亥二年二月 二日」 四年四月四 日	결	開元十二年 甲子四月十 一日□□毛勺 」聖林郎
이 문 기	戊年六月二 日永郎成業」	開成三年戊午」 三月一日文巖 具」化看夫之」	☒☒王七 年僧徒☒ ☒	辛亥年九月 日」主陪朗者 成三人	略함	癸亥年二月 二日」 亥年四月四 日	결	乙卯年甲子 四月十一日 喙烏毛(下缺)
강 종 훈	결	開成三年戊午」 三月一日文巖 見□□典來 之	日王七年 僧徒上	辛亥年九月 日」主陪月朗 吉成三人	略함	결	결	元十二年甲 子四月十一 日喙奪?毛」
전 호 태	戊年六月二 日」永郎成業 共(?)	開成三年戊午」 三月一日文巖 見□□典來 之	日?王七年 僧徒上	辛亥年九月 日」主陪月朗 吉成三人	略함	결	결	元十二年甲 子四月十一 日喙奪?毛」
필 자	戊年六月二 日」永郎成業 用」	開成三年戊午」 三月一日文巖 具」大一人☒ 身典來之	日王七年 僧徒上	辛亥年九月 日」主陪月朗 者成三人	略함	癸亥年二月 二日」乙丑 四月」日」 業以赴世 <sup>17)</sup>	辰八月	元十二年甲 子四月十一 日喙皿毛」 {(聖-王)/口} 林助
간 지	?	戊午(838)	丁亥(687) 戊戌(698) 丙戌(806) 癸未(923)	辛亥(?)	己未(53 9)	乙丑(?)	미상	甲子(724)

四月」日」以赴世“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림 3〉 계해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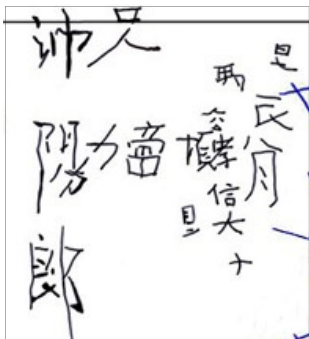
다음으로 간지에서 天干이 생략된 명문을 비교해 볼 수 있다. ㉞의 제명을 보면, 앞에 癸亥년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癸를 생략하고 亥만을 넣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연도라면 亥자도 생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sup>18)</sup> 그리고 □亥를 乙丑으로 판독해 볼 수 있다(그림 3). ‘乙(△)’자의 위에 무언가 새긴 것이 있는데, 본 명문과 무관한 듯 보이며, 아래에도 알 수 없는 것이 새겨져 있다. 기존 판독에는 ‘業’과 ‘赴世’를 뺐으나, ‘業’과 ‘赴世’라는 글자가 연관되어 보이므로 명문 내용에 포함하였다. 왼쪽으로 약간 기울게 썼고, 글자 크기가 두 종류이다. 赴世는 다른 글자보다 4배 정도 큰데, 丙戌年去명(C3, 丙戌年[ ]去日)도 去자가 병술보다 크다.<sup>19)</sup> 이는 강조하려는 의도인 듯하며, 또 작은 글자를 침범해 새겼음을 볼 때, 가장 마지막에 썼을 듯하다. 赴世는 『抱朴子』에 등장하는 起勢(赴世) 公子처럼 刻者の 이름이거나,<sup>20)</sup> 단순히 ‘出世’라는 의미로 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맥상 계해년 2월에서 을축년 4월까지 ‘업으로써 세상에 나간다’라고 풀이할 수 있고, 뒤에서 살펴본 영랑의 ‘成業用’이라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㉞辰八月명은 오른쪽에 세선화와 天作愼天, 二日이 있고, 辰八月 위에 𠂔[瑪], 왼쪽에 谷(혹은 八公), 孝信太子, 頂膺力(가로쓰기), {目/二},

18) ‘계해년’은 성류굴(장천굴)과 점말동굴의 제명에도 보이는데, 화랑의 수행 의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계해년은 60간지의 마지막 해이며, 계는 검은색을 상징하고 해는 돼지이므로 검은 돼지의 해이다. 음양학적으로 음이 가장성한 ‘大海水’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양이 성해진다고 믿었다고 한다(김재홍, 『신라 刻石 명문에 보이는 화랑과 서약』, 『신라사학보』 45, 2019, 282쪽).

19) 丙戌과 年[ ] 사이에 ‘去’자가 있으며, ‘去’자의 ‘△’ 안에 ‘日’자로 보이는 글자가 찍어 있다.

20) 도사 起勢公子(晉 葛洪 撰, 『抱朴子』 外篇卷一, 嘉遼第一)를 赴世公子라고 하였다(曹玟煥, 『『抱朴子』 外篇에 나타난 葛洪의 嗜好性的 隱逸觀』, 『한국사상과 문화』 74, 2014, 184쪽).



〈그림 4〉 辰八月명

{彡+巾}(혹은 沛, 沖)陽郎 등의 제명이 있는데, 辰八月은 谷, 孝信太子보다 크게 새겼다. 辰八月과 孝信太子는 상관성을 보이나, 좀 더 분석이 필요할 듯싶다.<sup>21)</sup> 참고로 『삼국사기』 효성왕 4년(庚辰, 740)조에 孝信公이라는 이름만 보인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고, 피휘 때문에 천간을 생략했다면, 中代 孝昭王 이전에 방문하고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 밖에 ㉞元十二年甲子명이 있는데, 기존의 판독은 元을 ‘開元 또는 元’이라고 하였다. 마모된 것이 아니라 ㉞의 日王명처럼 원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명문 오른쪽 ‘助(지)’자가 있는데, 助와 명문의 글자체가 다르므로 관련성은 없는 듯하다. 기존에 ‘開元’이라고 판독한 이유는 ‘12년 갑자’에 근거한 것이다. □□12년 갑자의 연호는 開元이고, 724년이다. 천간이 아닌 연호의 앞 자를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元 위에 ‘一’이 빠졌는데, ‘日王명’의 사례처럼 缺劃法을 차용한 듯하다. 이때가 724년이므로 元聖王은 제외하고, 原宗(법흥왕의 휘)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가 다르고, 문무왕대에 ‘元’자를 사용한 上元二年명(B4, 675)과 上元四年명(B7)을 보면, 피휘라는 이유로 천간을 생략했다는 추론의 근거가 약하다.

여기서 천간 생략과 피휘의 상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피휘법이 고려 때 유행하지만, 성덕왕(隆基)이 당현종의 이름과 같아 興光이라고 고친 사실을 보면, 당시 신라인들은 피휘법을 알고 있었다. 피휘의 空字法을 적용해 보면, 甲·丙·戊·庚·壬자가 들어가는 신라왕은 없다. 代字(同音異字)로서 戊와 武[武烈王, 文武王], 庚과 景[景德王·景文王·景明王·景哀

21) 皂田谷{日二}/辰八月」孝信太子/頂舊力/{彡+巾}陽郎 등 4개의 제명으로 볼 수도 있다.

22) 『삼국사기』 권9, 효성왕 4년 7월조. 경진 8월(680, 문무왕20), 임진 8월(효소왕의 즉위년월)로 추정할 수 있다.

王, 景暉(흥덕왕)·景徽(신덕왕)], 敬[敬信(원성왕), 敬順王], 慶[慶應(문성왕)]을 고려해도 술년의 천간을 찾는 작업은 간단치 않다.

### 3) 내용을 통한 연대 비정

서석의 내용별 구분은 명문의 심층 분석을 통해 가능하지만,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祭禮事, 建築工事, 방명록·낙서장으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술년명은 제례·공사의 내용보다는 방명록의 성격이 다분하다.

먼저 왕실의 祭禮事와 관련하여 乙巳年(525, 원명), 己未年(539년.7.3, 법흥왕 26, 추명), 癸亥年명(543.2.8, 진흥왕 4), 乙丑年九月명(545년, 진흥왕 6) 등을 들 수 있다.<sup>23)</sup> 양도 많고, 내용도 풍부하다. 테가 있는 기미년명은 을사년명에 이어 새겼는데,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 테를 둘렀다고 이해한다. 테를 두른 점 외에는 成年명과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사와 관련한 내용도 정리할 수 있는데, B7에 세 명문이 나란히 새겨져 있다. 경인년명이 다른 두 명문보다 글자체 작다.

<표 2> 건설공사 관련 명문(B7)과 C2의 간지 명문

관독자	건설공사 명문			C2의 명문		
	㉔上元四年명	㉕壬午年명	㉖庚寅年명	㉗辛亥年명	㉘丙戌載명	㉙乙未年명
황수영	正元四年十月廿四日夫沐井姨在「相郎」	壬午年六月十日	缺	辛亥年九月中丙雄並并行	丙戌載六月廿八日	乙未年九月五日道女兮春談道權伊就等隨官郎
임창순	上元四年十月廿四日夫汁坪宅猪鳥	壬午年六月十日自	缺	辛亥年八月中丙雄妻并行	丙戌載六月廿八日官郎	乙未年九月五日道安春談道權伊就等隨
허홍식	上元四年十月廿四日夫沐井姨在「相郎」	壬午年六月十日	缺	辛亥年九月中丙雄妻并行	丙戌載六月廿八日	乙未年九月五日道女兮春談道權伊就等隨官郎

23) 강영경, 「울산 천전리 서석곡의 명문과 세션화에 보이는 여성」, 『한국암각화연구』 19, 2015, 5~8쪽.

이 문기	上元四年十月 四日夫米坪宅 猪鳥	壬午年六月十 日自	缺	辛亥年九月中 芮雄妻并行	丙戌載六月十 六日官郎	乙未年九月五日 道安号春談道權 伊就等隨
강 중훈	上元四年十月 廿四日夫十坪 宅猪場永工	결	庚寅年四月 日	결	결	乙未九月五日道 安号春談道權伊 就等隨
전 호태	上元四年十月 廿四日夫十坪 宅猪場十二 永工	결	결	辛亥年九月中 芮雄妻并行	丙戌載七月廿 六日	乙未九月五日道 安号春談道權伊 就等隨
필자	上元四年十月 廿四日夫十坪 宅猪場永工	壬午年六月十 日口垵二人 同心	庚寅年四月 日口沃	辛亥年九月中 芮雄妻{羊/升} 行	丙戌載七月廿 六日天官郎	乙未九月五日道 安号春談道權伊 就等隨
추정	정축(677)	경인년명 이전(682?)	(690?)	병술제명 이전(711)	병술(746)	중대 이후(695, 755, 815, 875?)

㉔上元四年명은 ‘上元四年十二月二十四日夫十坪宅猪場永工’라고 판독하고, “上元 4년(정축, 677) 12월 24일에 夫十坪宅이 돼지사육장의 공사를 마쳤다”라고 풀이한다.<sup>24)</sup> ㉕임오년명은 기존 판독자들은 ‘二人同心’을 별개의 명문으로 보았으나, 모두가 하나의 명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임오년 6월 10일에 푸석돌이 섞인 흙을 ㉔했는데, 2인이 한마음이었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㉖庚寅年명의 ‘口沃’은 ㉕임오년명의 ‘六’과 ‘月’ 사이에 ‘口’자를 새겼고, ‘月’과 ‘十’ 사이에 ‘沃’자를 추가한 흔적이 있으므로 임오년명 이후에 경인년명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口沃은 “七月廿九日」行用水元”(C2)의 ‘用水’, ‘水求’(C4) 등 물과 관련한 공사가 아닐까 한다.<sup>25)</sup> 그리고 세 제명의 첫 글자 위치를 보면, ㉔가 제일 높이 새겼고, 다음으로 ㉕壬은 上元四年의 年에 위치하고, ㉖庚은 임오년명의 六月 사이에 위치해, ㉔-㉕-㉖의 순으로 새긴 것임을

24)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편, 『울산 천전리 암각화』, 2014, 75쪽; 강영경, 앞의 논문, 10쪽. ‘月’자 오른쪽으로 ‘七’가 새겨져 있다.

25) 서석 제명 중 ‘流水(C1),’ ‘水求(C4)’는 기우·禊浴 의례와 관련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전호태, 앞의 논문(2018), 236쪽]. 口沃을 낙서라고 풀이하기도 하는데(강중훈, 앞의 논문, 43쪽), 곧(口)은 뚫다라는 뜻이므로 물길을 만들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인 듯하며, 공사 관련 명문이라고 생각된다.

알 수 있다. 임오년, 경인년만으로는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으나, 제일 앞에 상원4년이 있음으로써 정확한 연도를 넣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새긴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임오년명은 상원4년명 이후 경인년명 이전인 682년에, 경인년명은 690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같은 유형으로 같은 구역에 나란히 새긴 것을 보면, 술년명이 있는 C2 구역의 명문들도 고려할 수 있을 듯하다.

#### 4) C2 구역의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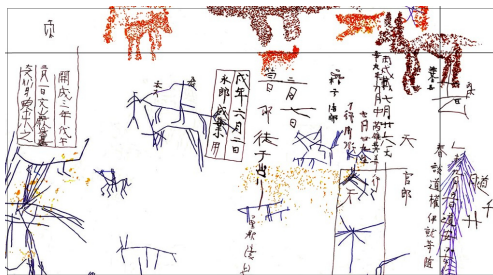
술년명 왼쪽에 그림(細線畵)이 있는데, 말(혹은 소)을 타고 고삐를 잡은 사람과 아래에서 또 한 사람이 말을 잡고 있으며, 왼쪽을 향하고 있다. 서석의 암각화를 제외하고, 세선화의 사람과 동물은 대부분 왼쪽을 향하고 있으나,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것도 있다(B7 말을 탄 인물과 C6 말). 여기서 왼쪽이 경주인지, 서석곡을 말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일부 세선화는 제례기사명(기미명 또는 을미명)과 연관된다는 견해가 있다.<sup>26)</sup> 말꼬리가 ‘成業’ 글자까지 그려져 있는 세선화와 술년명이 관련된 것이라면, 騎手는 영랑일 가능성이 있다. 짐승을 탄 사람 위에 작은 글씨가 1자 혹은 2자가 적혀 있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太方<sup>27)</sup>(혹 春方)이라는 두 자가 새겨져 있는데, 기수 위의 글자도 두 자가 맞을 듯싶다.<sup>28)</sup>

C2 구역의 명문을 보면, 오른쪽에 “三月七日」暮郎徒于圖」”，“七月廿九日」行用水」元”이라는 명문과 ‘元’의 아래에 ‘朴兮法師’가 새겨져 있다(그림5 참조). 이들 명문은 글자 크기, 두께에서 차이가 있는데, 시간을 달리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6) 강영경, 앞의 논문, 11~12쪽.

27) 太方 혹은 大方으로 판독할 수 있다. 백제 무령왕릉과 6호분에서 출토된 ‘中方’, ‘大方’명 벽돌 등은 벽돌이 사용된 위치 등의 쓰임새를 의미하거나, 中方을 五方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김영심, 「백제 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연구』 33, 2019, 28쪽).

28) 한 자로 볼 경우, 秦, 榮, {乃/公} 등으로 판독되며, 두 자라고 할 경우는 大末, 乃末, 大公, 乃公, 牟公, 스公 혹은 入谷 등으로 판독할 수 있다. 이 글자들이 두 사람의 신분·지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림 5> C2의 제명

간지가 있는 명문으로는 오른쪽으로 辛亥年명(11자)·丙戌載명(11자)·乙未九月명(17 혹은 18자)이 있으며(표 2), 왼쪽에 開成三年戊午명이 있다(표 1㉔). 간지 제명 중 開成三年명과 丙戌載명만이 분명한 연도를 보여준다.

辛亥年銘과 丙戌載명은 붙어있는데, 글자 크기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별개의 제명으로 보인다. 이 두 제명의 제작 시기는 신해년명이 앞섰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丙戌載명과 乙未年명 사이에 ‘天官郎’이라는 명문 때문이다. 혹은 ‘官郎’만 丙戌載명에 연결된 제명으로 관독하기도 한다. 서석의 명문은 세로쓰기인데, 병술제명과 신해년명 아래에 ㄱ테를 두른 명문[人天 2자]이 있으므로 부득이 명문 오른쪽에 새긴 것으로 보인다. 병술제명에는 내용의 주체가 없는데, 주체로서 天官郎 혹은 官郎을 주목할 수 있다. 또 신해년명의 끝자인 ‘行’이 ㄱ안에 새겨져 있는데, 이 테두리는 신해년명 이후에 새긴 것으로 보이므로, 신해년명-ㄱ人天명-병술제명의 순으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sup>29)</sup> 丙戌載(746)명은 年 대신에 載라고 썼던 기간(唐玄宗대 744~758년)을 참고하면 연대가 확실하다. 이 외에 B7 丙申載명(756, 3행 15자)이 있다. 이를 보면, 신라인들도 당현종대에 ‘載’를 썼음을 알 수 있고, 戊年은 경덕왕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乙未九月명은 화랑이 아닌 승려의 제명이다. 이 명문의 풀이는 을미년 9월 5일에 “道安이 불러서[号] 春談과 道權, 伊就 등이 따라오다.” 혹은 “道安과 号春, 談道, 權伊就 등이 따라오다.” 등 두 가지로 가능하고, 후

29) 병술제명은 오른쪽에 공간이 있음에도 신해년명에 붙여 새겼는데, 芮雄과(天)官郎의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신해년명은 711년에 새겼을 것으로 보인다.



자로 풀이하면 고려시대일 것으로 보았다.<sup>30)</sup> 道權은 道安의 제자이거나 道伴으로 봄이 맞을 듯하다. 제명 연도는 道安에서 단서를 찾는다면, 『釋門自鏡錄』에 수록된 흥륜사 도안을 참고할 수 있다.<sup>31)</sup> 이 책을 엮은 懷信이 8세기의 인물이니, 도안은 그 이전에 활동한 승려라고 할 수 있으나,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을미년의 연도는 추정이 불가하다. 다만 春談을 인명으로 보기도 하나, ‘談禪’의 용례처럼 ‘봄에 교학을 論談’하는 모임에 道權·伊就 등이 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 교학 불교가 융성했던 중대 이후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 오른쪽에 조금 크게 새긴 ‘道千 月升[혹은 道月 千升]’을 이 명문과 연결된 하나의 제명이라면, 병술제명보다 후대에 새긴 것으로 볼 수 있다. ‘天官郎’이 새겨져 있으므로, 명문을 이어서 왼쪽에 새길 수 없어 오른쪽에 새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누락 혹은 생략된 천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永’과 ‘戊’의 의미를 참고했고, 형태와 내용을 서석의 유사 명문과 비교해 보았다. 永=末, 戊年=狗年=九年라는 추론을 통해 戊戌을 제외한 나머지 천간을 비정해 볼 수 있었다(표4 참조).

술년명은 형태상 태가 있고, 천간이 없으며, 내용상 방문록의 유형을 보인다. 태가 있는 제명은 중고기부터 하대에까지 고루 분포하며, 간지가 생략된 명문은 日王七年명, 辰八月명, 元十二年甲子명이 있다. B7 건설공사 명문과 C2의 명문 중 乙未九月명을 제외하면, 대체로 中代를 작성 시기로 볼 수 있다. 술년명과 같은 유형의 題銘은 日王七年명이 유일하다. 日王七年을 신문왕 7년(정해)으로 비정하기도 하나, 효소왕 7년(戊戌)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태를 두르고, 간지를 생략하는 경우는 中代의 명문에서 찾아진다. 태는 없지만, 연대를 생략한 元十二年甲子명도 참고할 수 있다. 또 辰八月명이 孝信太子와 연결되고, 효성왕대의 孝信

30) 강중훈, 앞의 논문, 31쪽.

31) 당 懷信, 『석문자경록』 卷上, 分悲貪鄙錄五, 唐新羅國興輪寺僧 變作蛇身事(대정신수 대장경 T51 N2083, 809~812쪽). 도안은 경론에 해박해 종파의 少長이 되었으나, 음식맛에 집착하여 뱀으로 변했다고 한다.

공과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중대라고 할 수 있다.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보면 술년영랑은 중대의 화랑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예외로서 上元銘 2개와 병술재·병신재명이 있다. 이들 명문 역시 중대에 새긴 것인데, 간지가 모두 있기 때문이다. 간지를 생략하는 것이 중대 제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추론의 결과를 다시 成業의 의미를 통해 논증할 필요가 있다.

### Ⅲ. 成業의 의미

천전리 서석은 화랑들이 이곳에 遊娛해 刻字한 것으로 추정되며,<sup>32)</sup> 영랑의 成業도 遊娛·修練·儀式과 관련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戊戌년에 쓸 수 있는 천간은 甲丙戊庚壬인데, 이들을 剛日이라고 한 『禮記』 曲禮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① 『禮記集說』에 이르기를, “甲丙戊庚壬은 剛日이고, 乙丁己辛癸는 柔日이다. 先儒들은 外事를 治兵으로 보았지만 巡狩·朝聘·會盟 등도 모두 外事이다. 內事는 종묘의 제사나 冠禮·婚禮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禮記述註].<sup>33)</sup>

『禮記』에서 “外事(바깥일)는 剛日에 행하고, 內事(집안일)은 柔日에 행한다”라고 하였는데, 元代 陳澧가 주석한 『禮記集說』에는 강일과 유일을 나누어 강일은 甲丙戊庚壬日이고 治兵·巡狩 등 외사를, 유일(乙丁己辛癸)에는 종묘제나 冠禮·婚禮 등의 내사를 행한다고 하였다. 진호보다 앞선

32) 李基東, 「新羅 花郎徒의 社會學的 考察」,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346쪽; 李泳鎬, 「蔚珍 聖留窟 巖刻 銘文의 검토」, 『목간과 문자』 16, 2016, 259쪽 재인용. 혹은 영랑을 비롯한 낭도들이 이곳에서 수련이나 의식을 행하고, 기념하기 위해 새긴 명문으로 보기도 한다(김재홍, 앞의 논문, 276쪽).

33) 李光坡(1651~1723) 撰, 『禮記述註』 권1, 曲禮上第一, “集說曰, 甲丙戊庚壬為剛, 乙丁己辛癸為柔, 先儒以外事為治兵, 然巡狩朝聘會盟之類, 皆外事也. 內事如宗廟之祭冠昏之禮, 皆是.”

後漢代 王充은 이러한 구분은 내외사를 신중히 하라는 의미이지, 길흉으로서 禍福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宋代 遊桂는 그것을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때 陰陽에 따라 자연에 순응한 것이라고 하였다.<sup>34)</sup> 晋代에 하늘의 도는 陰陽, 땅의 도는 剛柔, 사람의 도는 仁義라고 설명하고, ‘陽日=剛日=仁, 陰日=柔日=義’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갔다.<sup>35)</sup> 원래 강일·유일은 내외사의 택일을 말하나, 후대인 淸의 기록을 보면, 擇年으로 소급해 적용하기도 하였다. 淸代의 中祀는 剛柔年의 구분이 없었는데, 朝日壇祭는 剛年에, 夕月壇祭는 柔年(丑未)·강년(辰戌)에 지냈다.<sup>36)</sup> 신라에도 中祀에 택일했던 모습이 보인다.

② 立春 후 亥日에 明活城 남쪽 熊殺谷에서 先農에게 제사하고, 立夏 후 亥日에 新城 북문에서 中農에게 제사하며, 立秋 후 亥日에 蒜園에서 後農을 제사한다. 立春 후 丑日에 犬首谷門에서 風伯에게 제사하고, 立夏 후 申日에 卓渚에서 雨師에게 제사하며, 立秋 후 辰日에 本彼遊村에서 靈星에게 제사한다[삼국사기].

신라는 剛日(申·辰; 雨師祭·靈星祭)과 柔日(亥·丑; 先農祭·中農祭·後農祭·風伯祭)로 나누어 제사했다. 또 오묘제는 正月 2·5일, 5월 5일, 7월 상순, 8월 1·15일 등 6차례 시행되었고, 12월 寅日(剛日)에 新城 북문에서 八禮祭를 시행했다.<sup>37)</sup> 이를 보면, 신라의 제례는 『예기』의 기록대

34) 後漢 王充, 『論衡』 권24, 譏日第七十, “禮曰內事以柔日, 外事以剛日, 剛柔以慎內外, 不論吉凶, 以爲禍福。” 明 胡廣 等撰, 『禮記集說大全』 권1, 曲禮上 第1, “廣安游氏曰, 外事以剛日, 內事以柔日, 此謂順其陰陽也. 聖人之治天下, 本之以自然, 行之以至順, 如此而已. 三才之道, 在天爲陰陽, 在地爲柔剛, 在人爲仁義. 仁者陽與剛之屬也, 義者陰與柔之屬也. 古人以是二端, 盡三才之理, 然是二者, 不可以交相雜也. 柔者從陰, 剛者從陽, 外者從剛, 內者從柔, 此謂自然而至順者也.”

35) 晉 袁宏, 『後漢紀』 後漢孝順皇帝紀卷第十八(<https://www.kanripo.org>) 참조

36) 李埤, 『聞見雜記』 上, 雜記(『燕行記事』), “凡祭祀日, 禮部每歲九月, 筭欽天監選擇, 知委太常寺. … 天地壇·祈穀壇·太廟·社稷爲大祀, 皆皇帝親祭, 或遣官代行. 朝日壇·夕月壇及歷代帝王廟·文廟·先農壇爲中祀. 朝日壇則遇甲丙戊庚壬年, 親祭或攝行. 夕月壇則遇丑辰未戌年, 親祭或攝行. 歷代帝王廟及文廟·先農壇. 或特行親祭, 其餘遣官代行. 太歲·神祇等壇及先醫·東岳城隍等廟爲小祀. 亦皆遣官致祭.”

37) 4세기 말부터 5세기 전반 고구려와 신라간의 긴밀한 교류로 고구려로부터 신라에

로 柔日에만 시행된 것이 아니고, 강유일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제례 또한 모두 유일에 시행된 것은 아니다.<sup>38)</sup> 그러나 신라인들이 택일에 있어 剛柔日을 몰랐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경주에서 출토된 임신서기석을 참고할 수 있다.

③ 壬申年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쓴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성의 도리를 붙잡아 지녀[忠道執持] 허물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일[맹세]을 잃으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세한다. 만약 나라가 不安하고 크게 어지러워진다면[大亂],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맹세를 실행하겠다. 또 따로 먼저 辛未年 7월 22일에 크게 맹세[大誓]하였다. 詩書尙書禮記左傳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세하되 3년으로 하였다(임신서기석).<sup>39)</sup>

이 명문은 임신년에 작성한 것이며, 1년 전인 신미년의 서약도 새기면서 각오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신미년에 『詩書』, 『尙書(書經)』, 『禮記』, 『춘추좌씨전』 등을 3년 동안 습득하며, 임신년에는 3년 동안 忠道를 실천하겠다고 맹세하였다. 한편 7월과 6월이라는 시간대를 주목해 신미년에 서약한 학습 진도가 여의치 못하자, 임신년에 1년을 더 연장하고 3년 이후에 실천할 것까지를 서약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sup>40)</sup> 그러나 不安과 大亂이란 표현은 전쟁이나 謀叛을 말한 듯하고, 충성의 도리[忠道]란 세속오계의 事君以忠을 연상케 한다. 이것을 국가와 국왕

---

『주례』·『예기』 등이 수용되었고, 八槽祭는 『예기』의 ‘大蜡’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박남수, 「唐의 祀典 체계와 신라의 祀典 정비」, 『신라사학보』 45, 2019, 456~459쪽).

38) 남일은 漢代에는 冬至 후 셋째 戌日, 唐代에는 寅日(貞觀禮)과 辰日(開元禮)이었다(박남수, 위의 논문, 472쪽).

39) 최광식 역주, 「壬申誓記石」,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2,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176쪽,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 世可容行誓之, 又別先辛未年七月廿二日, 大誓,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40) 李丙燾, 「임신서기석에 대하여」, 『서울대논문집』 5, 1957 ;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688쪽.

에게 충성한다는 맹세라고 보면 임신년의 맹세는 武事의 성격이 다분하다. 신미년(柔年)의 맹세가 유교 경전을 학습하겠다는 文事라면, 임신년(剛年)에는 忠道를 강조한 武事를 맹세하였다. 아마 두 화랑은 剛日과 柔日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二郎’이 아닌 ‘二人’이라는 표현을 보면,<sup>41)</sup> 작성 당사자가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본 임오년명(표 2-㉔)에도 ‘二人同心’이라는 표현이 있다. 임오년은 강년으로 문사가 아닌 外事를 시행하는 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명문은 공사·건설과 관련한 명문이었다. 앞서 제례와 관련된 명문으로 4개를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을사년명(원명)·기미년명(추명)·계해년명·을축년명 등 모두 柔年임을 주목할 수 있다. 공사는 제례와 비교해 外事라고 생각되며, 剛年에 시작하는 것이 『예기』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하겠으나, 柔年인 정축(上元四年명)에 공사한 사례도 보인다. 그런데 上元四年명은 이때 공사를 마쳤다는 내용이지 언제 공사를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강유년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임신서기석의 신미년과 임신년은 김유신의 맹세·수련과 일치한다.<sup>42)</sup>

④ 진평왕 건복 28년 신미(611) 공의 나이 17세에 고구려·백제·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쳐들어온 적을 평정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홀로 中嶽 석굴로 들어가 몸을 깨끗이 하고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였다. … 건복 29년(임신) 이웃한 적이 점차 다가오자, 공은 마음에 품은 장하고 큰 뜻을 더욱 분발하여 홀로 寶劔을 가지고 咽薄山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여 빌기를 중약에 있을 때 맹세한 것처럼 하였고, 거들 “天官께서 빛을 드리워 寶劔에 영험함을 내려주소서.”라며 기도하였다. 3일째 되던 날 밤에 虛星과 角星(금성) 두 별의 빛이 환하게 내려와 드리우더니, 감이 동요하는 것 같았다[삼국사기].

김유신은 신미년에 中嶽에서 하늘에 맹세하고, 이듬해 임신년(612)에

41) 임신서기석의 二人을 화랑으로 보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듯하다. 화랑 斯多舍·武官郎, 貴山·箒項 등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이병도, 앞의 논문, 692~693쪽).

42)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上.

咽薄山(울주 열박재 추정)에서 본격적인 수련에 임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다분히 武事이다. 辛未年은 柔年으로서 文事를 시행하는 시기이나, 김유신의 사례를 보면, 강유년의 구분은 모호하다. 박창화는 『花郎世紀』 殘本에서 영랑을 김유신과 비견되는 성덕왕대의 화랑으로서 永宗이라고 하였고, 金庾信은 ‘武’, 영랑은 ‘文’을 상징한다고 하였다.<sup>43)</sup> 그 근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영랑의 ‘成業’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戌은 『禮記』에서 말하는 剛日(剛年)으로서 兵事(外事)를 행하는 해이나, 그 業을 마무리한 해임으로 서약한 해를 기준으로 文武事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成業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⑤ 惠日 등은, “唐에 머물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학업을 달성하였으므로 [成業] 불러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저 唐은 법식이 두루 정비된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모름지기 항상 왕래하여야 합니다.”라고 함께 아뢰었다[일본서기].<sup>44)</sup>
- ⑥ 남천축의 삼장 實月과 제자 4명은 중천축에서 業을 이루고[成業], 아울러 持念의 큰 법을 해통하여 계율도 정성껏 행하고 널리 경론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청룡사 머물고 있다[입당구법순례행기].<sup>45)</sup>

이 밖에 백제승 觀勒이 602년에 曆本·天文·地理書 등을 가지고 왜에 갔을 때, 大友村主 高聰은 天文·遁甲을, 山背臣 日立은 方術을 배워 모두 업을 이루었다[皆學以成業]고 하였다.<sup>46)</sup> 위 인용문을 보면, 業이란 불교의 화엄업·유식업 등 교학, 도교의 천문법·둔갑술 등 술법을 말한 것으로 다분히 文事라고 생각되며, 유교에서도 다르지 않다. 『詩經』 有瞽에, “設業設虞…永觀厥成”라는 詩句가 있는데, 여기서 業이란 鐘·磬을 매달 틀[大板]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成은 음악을 마친다는 뜻이라고 한다.<sup>47)</sup> 여기서 성업은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며, 넓은 의미로서 禮事·文事

43) 박남수, 「신발견 朴昌和의 花郎世紀 殘本과 ‘鄉歌’ 一首」, 『동국사학』 43, 2007, 66~69쪽.

44) 『日本書紀』 권22, 豐御食炊屋姫天皇 推古天皇 31년 가을 7월조 참조.

45)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4, 會昌五年 四月조 참조.

46) 『日本書紀』 권22, 豐御食炊屋姫天皇 推古天皇 10년 冬 十月조 참조.

47) 『詩經』 周頌 제2 臣工之什, 有瞽 및 『毛詩李黃集解』 권31, “虞業, 維縱植者曰虞, 橫

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成業의 의미는 『예기』 學記에 나오는 小成·大成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 ⑦ 고대의 교육은 家에 塾이 있고, 黨에 庠이 있으며, 衛[州]에 序가 있고, 國에 大學이 있다. 대학에는 매년 학생이 입학하고 그 후 2년마다 성적을 考査한다. 즉 입학하고 1년이 되면 경서의 구절 나누기와 해석을 배우게 하여 그 결과를 고사하고, 3년이 되면 학생의 학업을 敬重하며 봉우와의 화합에 힘쓰게 하여 그 결과를 고사하고, 5년이 되면 널리 많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여 각각 그 길의 교사에게 배우기를 힘쓰게 하여 그 결과를 고사하며, 7년이 되면 학문에 대해서 강론하고 벼를 취하는 데 힘쓰게 하여 그 결과를 고사하는데, 여기까지를 小成이라고 한다. 9년이 되면 유추할 줄 알고 사리에 통달하며 굳게 확립되어 도리에 위배되지 않으니, 이를 일러 大成이라고 한다[예기].<sup>48)</sup>

위의 내용은 대학에서의 교습 과정을 말한 것인데, 7년 과정의 소성과 9년을 수료한 대성은 성업이라는 의미를 잘 보여준다. 영랑의 ‘성업’이란 임신서기석의 내용처럼 『시경』·『예기』 등 유교 경전 공부를 의미하거나, 음악 공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業은 修練보다는 修學이라는 의미의 文事라고 봄이 옳을 듯하다. 성업이라는 표현은 불교에서 많이 쓰인 듯하며, 유교에서는 修業·居業이라는 표현도 보인다.

- ⑧ 九三에 이르기를, ‘군자가 중일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저녁에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공자가 이르기를, “군자가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는다[脩業]는 것은 충실함과 신뢰로써 덕에 나아가는 것이고, 말을 가다듬고 그 정성을 세움으로써 업에 거하는 것[居業]이다. 이를 줄을 알고 이르니 더불어 도모할 수 있고, 마칠 줄을 알고 마치니 더불어 뜻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며,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굳세고 굳세게 해서 그때로 인하

者曰栒, 設大板於栒之上曰業, 櫟崇牙也.”; 『詩補傳』 권26, “設業者, 以版飾栒也, 設虞者, 所以植也. 崇牙者, 業之上齒也, 櫟羽者, 所以飾也.” 『詩經集傳』 권8(홍정사고전서 9가), “業虞崇牙見靈臺篇, … 觀, 視也, 成, 樂闋也.”

48) 『禮記』 第十八, 學記 참조. 明 胡廣 等撰, 『禮記大全』 권17에 “術은 州의 오자[術<當為州>有序]”라고 하였다.

여 두려워하면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子夏易傳].<sup>49)</sup>

- ⑨ 行하고 드러난 德을 이름으로써 교화하고, 나아가 지극한 德을 닦음으로써 업을 이룬다. 대중을 교화하는 덕을 써서 업을 삼는다[易小傳].<sup>50)</sup>

子夏가 풀이한 『주역』 乾卦 九三爻에서 ‘업을 닦거나, 업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확인된다. 宋代 沈該의 주석인 『易小傳』에는 ‘成業用’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德과 業을 특히 강조하였다. 영랑이 沈該의 책을 보지 못했으나, 위의 子夏의 주석과 다음의 魏代 王弼의 주석을 보면, 내용상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⑩ (九三爻는) 下體의 極에 처하고 上體의 아래에 거하여, 中하지 못한 자리에 있고 重剛의 험함을 밟고 있다. 위로는 하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높음을 편안히 할 수 없고, 아래로는 밭에 있지 아니하여 그 거처를 편안히 할 수 없다. 순수하게 아랫사람의 道를 닦으면 윗사람의 德이 폐해지고, 순수하게 윗사람의 道를 닦으면 아랫사람에 처한 禮가 비게 된다. 그러므로 중일토록 부지런히 힘써서 저녁에 이르도록 두려워하나 오히려 위태로운 듯한 것이다. 위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아래에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아니하여 때에 따라 두려워해서 그 幾微를 잃지 않으면 비록 위태롭고 수고로우나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周易].<sup>51)</sup>

공자는 修業과 居業을 같은 뜻으로 말하고, 말을 가다듬고 그 정성을 세우는 것을 業이라고 하였다. 임신서기석의 학습 내용에 『周易』은 들지 않았고, 신라 영랑이 宋代의 문헌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成業의 목적이 修己治人 중 치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다.

49) 『周易』 上經, 乾第一, “九三曰, 君子終日乾乾, 夕惕若厲无咎. 何謂也. 子曰, 君子進德脩業, 忠信所以進德也, 脩辭立其誠, 所以居業也. 知至至之, 可與幾也, 知終終之, 可與存義也. 是故居上位而不驕, 在下位而不憂, 故乾乾因其時而惕, 雖危无咎矣.”

50) 宋 沈該(12세기) 撰, 『易小傳』 권1上, 上經, “九三君子終日乾乾, 夕惕若厲无咎之履<兌下乾上> 終日乾乾進德也, 乾乾不息也, 惕若戒懼也, 二行而成顯德以為化, 三進而修極德以成業, 用其化衆之德, 以為業者也.”

51) 魏 王弼 注, 『周易』 上經 乾傳第一[동양고전종합DB(<http://db.cyberseodang.or.kr>) 접속일자 2021.04.09.] 乾卦 初爻(初九)는 潛龍, 二爻(九二)는 見龍, 三爻(九三)는 乾龍, 四爻(九四)는 躍龍, 五爻(九五)는 飛龍, 上爻(上九)는 亢龍이라고 한다.



앞서 成業用을 成業甲으로 추론해 보았는데, 본래 用이었다면, 다음의 두 가지로서 풀이할 수 있다.

- ⑪ 좋은 계획 따르지 않고, 나쁜 것만 도리어 따르는구나.… 내 거북도 이미 지쳐 나에게 계획 알려주지 않는구나. 계획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是用不得]. 말하는 이는 마당에 가득 차는데, 누가 감히 그 허물을 책임질 것인가, 지나가는 사람의 계획처럼 해내려 해도 길을 잡을 수 없다[시경집전].<sup>52)</sup>
- ⑫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가리켜 알 수 없는 암컷[玄牝]이라 한다. 알 수 없는 암컷의 門은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뿌리이다. 있는 듯 없는 듯 이어지나,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用之不勤][도덕경].<sup>53)</sup>

⑪은 『詩經』 권2, 小雅편, 小旻詩의 내용이며, 왕이 사특한 꾀에 유혹되어 쉼을 좇지 못하자, 大夫가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춘추좌씨전』에도 子駟가 이 글을 인용한 내용이 전한다.<sup>54)</sup> ⑫는 『도덕경』에서 谷神인 玄牝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들 인용문의 ‘是用不得’, ‘用之不勤’은 教化·治人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영량이 成業하고, 教化를 성취했거나 다함이 없었음을 덧붙여 새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用之不勤’이라고 하여 반드시 『도덕경』이 신라에 들어온 이후에야 그 말을 썼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신라의 『도덕경』은 738년(효성왕 2)에 唐使 邢璣으로부터 받았다는 기록이 보이지만,<sup>55)</sup> 金仁問(629~694)과 金志誠(652~?)의 사례를

52) 『시경집전(하)』 권12, 小雅, 小旻之什二之五, 小旻, “謀臧不從, 不臧覆用…我龜既厭, 不我告猶, 謀夫孔多, 是用不集, 發言盈庭, 誰敢執其咎. 如匪行邁謀, 是用不得于道.”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 참조].

53) 『도덕경』 제6장, 成象篇,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之根. 綿綿若存, 用之不勤.” ‘勤’은 대체로 ‘다하다[窮 또는 盡]’로 풀이하기도 하고 ‘수고롭다[勞]’로 풀이하기도 한다. 王弼은 골짜기가 만물을 생성하는 작용이 수고롭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고 한다[『노자도덕경주』 상편, 제6장;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 참조].

54) 『춘추좌씨전』(4) 魯襄公一, 八年, 丙申(B.C.565), “子駟曰, 詩云, ‘謀夫孔多, 是用不集, 發言盈庭, 誰敢執其咎. 如匪行邁謀, 是用不得于道.’ 請從楚, 駢也受其咎.”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

보면, 『도덕경』과 관련된 莊子·老子的 관심은 효성왕대 이전에도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sup>56)</sup> 앞서 술년영랑을 중대의 화랑으로 비정해 보았는데, 성업과 관련해서도 상충한 면이 있다.

영랑은 성업 이후 등용·入仕 등 그 활용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랑의 修業과 成業은 궁극적으로 사회 교화를 목표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영랑의 업은 文事라고 할 수 있다. 문사는 『예기』에 柔年에 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므로, 이를 준수했다면 영랑이 修業을 다짐한 시기는 3년 혹은 5년 전인 유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乾卦 三爻와 관련해 天干을 八卦에 분속하면 乾은 甲壬에 해당하며, 건괘 6효 중 3효(九三)는 壬午, 초효(初九)는 壬戌이다.<sup>57)</sup> 음악에서 12律은 陽律과 陰呂로 나뉘는데, 양률 중 ‘戌’의 氣가 無射이다. 先祖의 제사에 사용된 음악에서 무역으로 연주하고, 夾鍾으로 노래하며, 大武로 춤춘다고 한다.<sup>58)</sup> 戌年은 狗年, 戌의 氣인 무역은 9월을 의미한다. 술이 9자와 무관치 않으며, 천간의 9번째는 ‘壬’이다.

### 〈표 3〉 八卦와 十二律呂

8卦와 天干		12律呂과 12月					
八卦	天干	제사	연주[陽律, 六律]	노래[陰呂, 六呂]		춤	
乾(天)	甲壬	天神	黃鍾(子)	11월	大呂(丑)	12월	雲門
坤(土)	乙癸	地祇	大簇(寅)	정월	應鍾(亥)	10월	咸池
震(雷)	庚	四望	姑洗(辰)	3월	南呂(酉)	8월	大韶
巽(風)	辛	山川	蕤賓(午)	5월	函鍾[林鍾](未)	6월	大夏
坎(水)	戊	先妣	夷則(申)	7월	小呂[仲呂](巳)	4월	大濩
離(火)	己	先祖	無射(戌)	9월	夾鍾(卯)	2월	大武
艮(山)	丙						
兌(澤)	丁						

한편 성업의 소요 기간이 궁금한데, 영랑의 학습 기간은 임신서기석의

55)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효성왕 2년(738) 하4월조.

56) 『삼국사기』 권44, 열전4, 金仁問 및 「경주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719) 참조.

57) 초효부터 6효(上九)까지 初九(壬戌)－九二(壬申)－九三(壬午)－九四(甲辰)－九五(甲寅)－上九(甲子)이다. 漢 京房, 『京氏易傳』 권하(KR3g0030-003-2a) ; 宋 林至, 『易裨

3년 과정을 주목할 수 있으나,<sup>59)</sup> 고구려의 연개소문과 신라의 김유신이 산악에 들어가 10년 동안 수련한 기록이 보이므로 3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sup>60)</sup> 3년 기간 외에 대학의 소성·대성 과정의 7년과 9년, 26개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라에서 3년을 기한으로 맹세한 사례는 임신서기석 외에 南山新城碑(제1비)와 천전리 서석의 계해년명을 참고할 수 있다. 신해년(591)에 작성된 南山新城碑에는 축성한 지 3년 이내에 무너지면 죄로 다스린다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앞에서 서석 중 천간이 생략되었고, ‘業’과 ‘赴世’라는 표현이 있는 계해년명을 검토했는데, ‘亥年’을 ‘乙丑’으로 판독할 수 있음을 밝혔다. 계해년 2월에서 을축년 4월까지 26개월이 지나 ‘業으로써 세상에 나간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를 보면, 3년은 36개월이 아닌 26개월로 볼 수도 있다. 백제 무령왕릉 출토 지석에서도 왕비의 3년상은 26개월(병오 12월~기유 2월), 무령왕은 27개월(계묘 5월~을사 8월)이었고, 양나라 또한 27개월의 3년상을 지냈다.<sup>61)</sup> 그런데 26개월의 사례는 喪禮의 大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며, 계해년명 또한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口戊년에 마치고, 그 始業을 3년, 7년, 9년으로 보더라도 그 해는 유년에 해당하여, 文事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학습기간을 26개월이라고 할 때, 강유년이 달라지나 26개월이 상례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始業의 해는 ‘口未年’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유년일 것으로 생각된다. 乙丁己辛癸 등 柔년에 禮事[文] 관련 내용을 서약하는 것이

傳』外篇(KR1a0045-002-16a)(<https://www.kanripo.org> 참조).

58) 『주례』 춘관중백, 大司樂條 및 大師條, 鄭玄注 참조. 이익, 『易經疾書』 卷2, 蠱(『星湖僊說』 권3, 德運).

59) 화랑의 수련 기간인 3년을 ‘成業·畢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李基東, 『新羅骨品制社와 花郎徒』, 일조각, 1984, 340쪽 참조; 曹凡煥, 「新羅 中古期 郎徒와 花郎」,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417쪽 재인용).

60) 『규원사화』 漫說; 崔三龍, 「異人說話의 思想的 背景에 對하여」, 『語文論集』 18, 1977, 399쪽.

61) 장창은, 앞의 책, 107쪽.

五行에 적합하다.

영랑의 성업은 文事로서 임신서기석의 화랑처럼 경전 학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임신서기석의 작성 시기는 통일 후 國學 교육이 성했을 때로 보기도 하나, 문체가 우리말의 문법 어순을 따르는 것을 보아 한문학이 미발달된 통일신라 이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62)</sup> 신라 국학에서의 교육 기간은 또한 중국 대학처럼 9년이었고, 『論語』·『孝經』은 기초 과목이었으며, 연차가 올라가면서 『曲禮』와 『춘추좌씨전』·『예기』·『문선』을 수학하였다. 임신서기석에 보이는 학습 과목이 국학의 교과목과 차이가 없으므로, 2인을 국학생으로 보거나, 작성 시기를 국학 설립 이후로 보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지금까지 술년의 의미에서 추론한 결과를 다시 成業의 의미를 통해 논증해 보았다. 業의 용례를 보면 대체로 文業이므로, 영랑이 수련한 業 또한 禮事와 관련한 文事라고 보았다. 『예기』와 『주역』을 참고해 成業이 乾卦의 내용과 일치함을 밝히고, 갑술과 임술일 것으로 추정했다. 실수의 누락과 의도된 생략 두 가지 추론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甲戌과 壬戌을 주목할 수 있다.

갑술과 임술년에 해당하는 왕은 진흥왕·진평왕·문무왕·성덕왕·문성왕이고, 선덕왕과 원성왕은 하나만 해당한다. 이들 중 중대의 문무왕과 성덕왕대가 술년영랑의 화랑 시절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술년영랑을 효소왕대 준영랑과 동일인으로 본다면, 술년영랑의 화랑시절은 문무왕대라고 할 수 있고, 효성왕대 永宗을 영랑이라고 한다면, 그의 화랑시절은 성덕왕대일 것이다. 향후 준영랑과 영종은 술년영랑을 이해하는데 검토해야 할 주제이다.

---

62) 최광식 역주, 앞의 책, 175~176쪽 ; 문경현 편, 앞의 책, 245~246쪽. 552년(진흥왕 13) 또는 612년(진평왕 34)으로 비정한다(李泳鎬, 앞의 논문, 252쪽).

〈표 4〉 술년의 추론

추론		술년	비정
실수	用=甲	甲戌	554년(진흥왕15), 614년(진평왕36), 674년(문무왕14), 734년(성덕왕33), 794년(원성왕10), 854년(문성왕16)
의도	戌=永=末·終	壬戌	542년(진흥왕3), 602년(진평왕24), 662년(문무왕2), 722년(성덕왕21), 782년(선덕왕3), 842년(문성왕4)
	戌=狗=艮卦	丙戌	566년(진흥왕27), 626년(진평왕48), 686년(신문왕6), 746년(경덕왕5), 806년(애장왕7), 866년(경문왕6)
	戌=狗=天狗	甲戌	-
	戌=狗=九	庚戌	710년(성덕왕 9)
	成業=乾卦	甲戌, 壬戌	-

#### IV. 맺음말

본고는 크게 두 가지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成年의 연대 비정과 둘째, 이를 통해 술년영랑의 활동 시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전·史書 등 문헌과 천전리 서석·임신서기석 등 금석문 자료를 검토하였다.

술년의 연대 비정은 실수로 누락이 됐거나 의도된 생략이라는 두 가지 추론을 살폈다. 실수의 누락인 경우는 명문 마지막 글자인 ‘用’(혹은 田·共)의 原字로 ‘甲’을 주목하였다. 의도된 생략이라는 추론은 일단 서석에서 꼬투리를 찾아보았다. 명문 형태와 내용을 주목해 테두리가 있는 명문과 천간이 없는 명문도 살폈다. 또 서석의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祭儀 명문, 工事 명문, 訪問 명문으로 나누어 영랑과의 연관성을 찾았다.

먼저 音韻을 참고했는데, 永郎의 永은 ‘末’이라고도 했으므로, 천간의 끝(9번째)에 있는 壬이 생략된 것으로 추론해 보았다. 또 戌年=狗年=戌年이라는 추론에서, 천간의 9번째인 壬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해 보았고, 병술이나 경술이라고 볼 여지도 언급했다.

술년명처럼 테가 있고, 연대도 일부 생략되었으며, 내용상으로 방문록의 유형을 보여주는 명문으로 日王銘을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였다. 日王七年명은 中代에 새긴 명문이며, 간지 일부를 생략한 元十二年甲子명과 辰八月명 또한 중대에 새긴 것이다.

또 成業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예기』의 剛日과 柔日, 小成과 大成的 구분을 참고했고, 『주역』에서는 乾卦 三爻(九三)의 내용을 주목했다. 건괘의 納甲은 甲壬이고, 초효(初九)는 壬戌, 3효는 壬午에 해당한다. 이를 보면, 戌年을 壬戌이라고 볼 수 있다. 성업이라는 용례는 유교·불교·도교에서 찾아지는데, 3교에 대한 이해가 풍성했던 시기는 中代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술년 영랑은 중대의 화랑이며, 술년명은 경전 학습을 마친 것을 기념해 새겼고, 이후 조정에 입사하려는 의지를 담았거나, 등용된 사실을 補刻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술년과 성업의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예기』, 『주역』, 『시경』 등을 인용하였는데, 『주역』을 제외하고, 國學의 교과목임을 볼 때, 영랑은 국학생이 아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며, 나아가 화랑으로서 국학생이었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향후 연구 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1년 4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김부식 편, 『삼국사기』 : 최치원, 『孤雲集』 : 李德懋, 『청장관전서』 : 李埰, 『聞見雜記』 : 李晩燾, 『響山集』  
『詩經』, 『禮記』, 『周易』, 『도덕경』, 『춘추좌씨전』  
魏 王弼 注, 『周易』 : 後漢 王充, 『論衡』 : 晉 袁宏, 『後漢紀』 : 唐 懷信, 『석문자경록』 : 宋 邵雍, 『皇極經世書』 : 宋 沈該 撰, 『易小傳』 : 宋 樂史 撰, 『太平實宇記』 : 明 胡廣 等撰, 『禮記集說大全』 : 李光坡 撰, 『禮記述註』  
『日本書紀』 :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 황수영, 『韓國金石遺文』(1976)  
임창순, 『韓國金石集成(先史)』(1984)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古代篇(1984)  
이문기,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1992)  
문경현 편, 『花郎 遺蹟地의 調査 研究』, 경상북도·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편, 『울산 천전리 암각화』, 2014.  
李丙燾,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李基東,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장창은, 『한국고대사 탐색의 세 가지 시선』, 역사인, 2019.
- 강영경, 「울산 천전리 서석곡의 명문과 세션화에 보이는 여성」 『한국암각화연구』 19, 2015.  
강종훈, 「울주 천전리 각석 명문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 『한국암각화연구』 18, 2014.  
金相鉉, 「高麗時代의 花郎 認識」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0, 1989.  
김재홍, 「신라 刻石 명문에 보이는 화랑과 서약」 『신라사학보』 45, 2019.  
박남수, 「신발견 朴昌和의 花郎世紀 殘本과 ‘鄉歌’ 一首」 『동국사학』 43, 2007 ; 「唐의 祀典 체계와 신라의 祀典 정비」 『신라사학보』 45, 2019.  
여성구, 「영랑의 활동 시기에 대한 자료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

- 李宇泰, 「蔚州 川前里書石 原銘의 再檢討」 『國史館論叢』 78, 1997.
- 李泳鎬, 「蔚珍 聖留窟 巖刻 銘文의 검토」 『목간과 문자』 16, 2016.
- 전호태, 「울주 천전리 서석 암각화 및 명문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암각화연구』 6, 2005 ; 「천전리 각석 명문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1, 2018 ; 「울산 천전리 각석의 가치와 의미」 『한국문화연구』 39, 2020.
- 曹致煥, 「『抱朴子』 外篇에 나타난 葛洪의 嗜好性的 隱逸觀」 『한국사상과 문화』 74, 2014.
- 曹凡煥, 「新羅 中古期 郎徒와 花郎」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 崔三龍, 「異人說話의 思想的 背景에 對하여」 『語文論集』 18, 197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동양고전종합DB(<http://db.cyberseodang.or.kr>)

CBETA 漢文大藏經(<http://tripitaka.cbeta.org>)

漢リポ Kanseki Repository(<https://www.kanripo.org>)

文淵閣四庫全書(<http://skqs.nlc.cn:8000>)



Abstract

## A Study on the time estimation of the Sulneonmeong(戌年銘) in the Cheonjeon-ri Seoseok of Ulju

Yeo, Sung-gu

This paper is an article that reveals the time of Yeongrang's activities in the Sulneonmeong(戌年銘). As a process of argumentation, I focused on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Sulneonmeong.

First, compared to having a border, and no the ten celestial stems. Ilwangchilneonmeong is like the Sulneonmeong, which was carved in the Middle Ages(中代). Second, it was compared with the writing on the stone that omitted part of the year. Seo Seok's Olshipineonmeong(兀十二年銘) and Jinphalwallmeong(辰八月銘) are also engraved on the Middle Ages.

Thir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finishing class'(成業), literature such as 『Lichi(禮記)』 was referred.

I not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Gangil(剛日) and Yuil(柔日), Sosung(小成) and Daesung(大成) mentioned in Lichi.

'The finishing class' of the Sulneonmeong was seen as meaning scriptural learning that started Yuneon(柔年). The finishing class is related to the Sosung and Daesung in Daehak(大學), connection with the Kookhak(國學) can be considered.

Fourth, the case of 'The finishing class' is found in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The period when the understanding of the three religions was abundant is the middle a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ulneon Yeongrang was a middle age Hwarang(or Kookhak student), and the Sulneonmeong was engraved in commemoration of the completion of the scripture learning, and that it contained the willingness to join the government afterwards, or added the fact that it was appointed.

**keywords :**

Sulneonmeong, Yeongrang, Hwarang, Cheonjeonri Seoseok, Junyeongrang